

HRI 리더스 포럼

최근 우리 경제의 현황 및 전망

2010년 12월 16일

현오석

Korea's Leading Think Tank





C O N T E N T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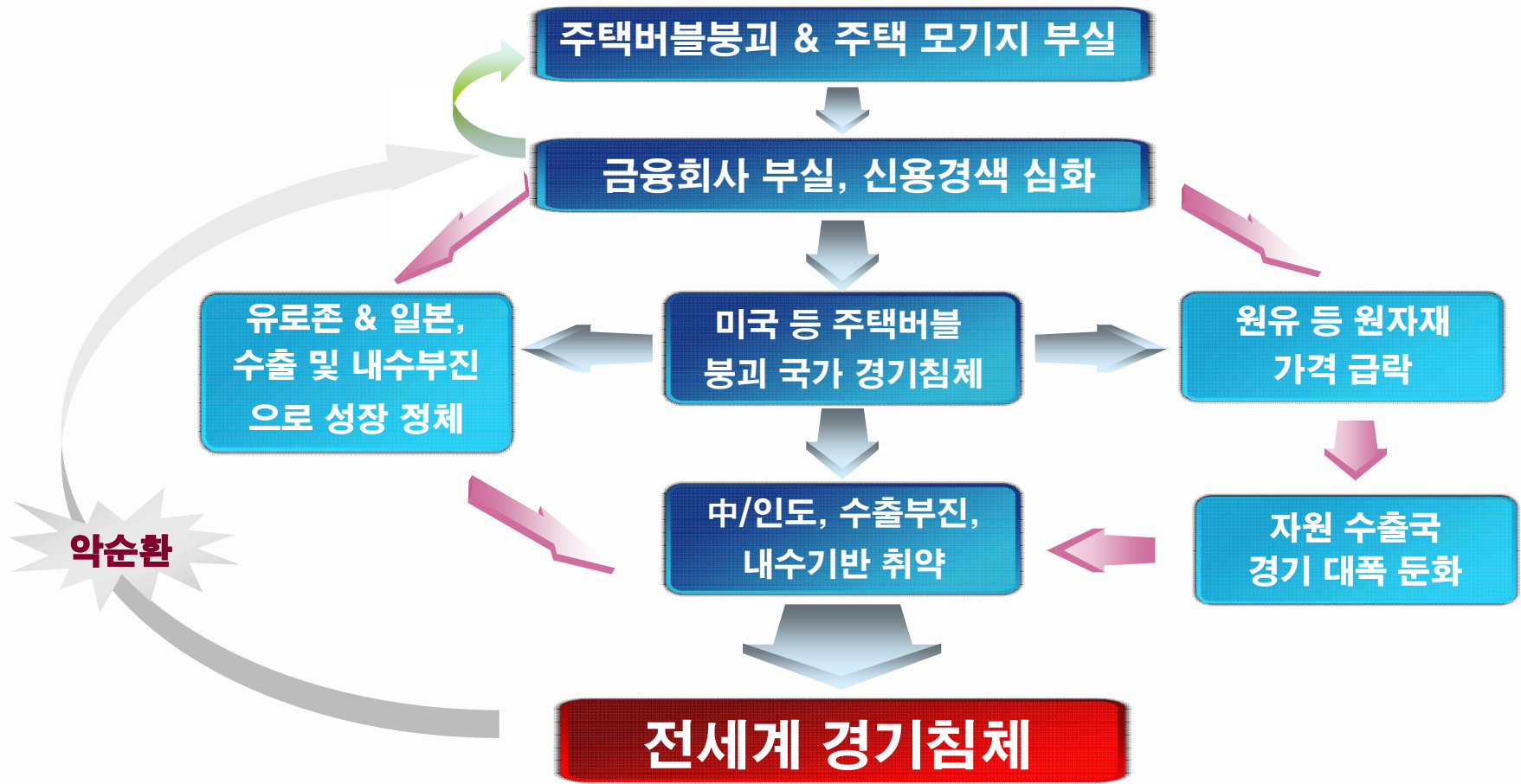
- I. **글로벌 경제위기**
- II. **최근 우리 경제 현황**
- III.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영향**
- IV. **최근의 경제 전망**
- V. **향후 경제정책 방향**



I. 글로벌 경제위기

글로벌 경제위기

신용경색 → 세계 경기침체 → 금융부실 심화' 악순환



글로벌 경제위기

원인 실물과 괴리된 과도한 자산버블의 연쇄 붕괴 → 금융시장 불안

- 세계적 저금리 기조와 금융규제 완화로 형성된 자산버블이 06년 하반기부터 붕괴

전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 → 글로벌 경제위기

-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일·EU 등 (-) 성장
 - * 주요국의 09년 경제 성장률(IMF, %)
 - : (세계) -0.8 (미국) -2.5 (유로) -3.9 (일본) -5.3 (한국) 0.2

침체 장기화 경기침체에서 회복까지 장기간 소요 예상 (IMF, 09.4월)

- 금융위기와 관련된 경기침체 : (침체기) 5.7분기, (성장률) -3.4% 감소
- 글로벌 경기침체 : (침체기) 4.5분기, (성장률) -3.5% 감소
- 금융위기와 글로벌 경기침체가 결합한 경우
 - : (침체기) 8분기(2년), (성장률) -4.8% 감소

경제위기의 본질

전례없는 세기적 위기 실물과 괴리된 과도한 유동성에 기초한 시장 붕괴

- 1차 충격 (금융시장불안) → 2차 충격 (실물경제 위축) → 3차 충격 (자산디플레)
- 글로벌 경제 : 경상거래 < 자본 거래
 - * 09년 미 장기국채 거래규모(51조달러)가 전세계 수출입 규모(30조달러) 상회(美 재무성 의회보고서, 10년)

세계적 생존 경쟁 강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자

- 금융 · 기업 · 가계 모두 보수적 자산 운용(Rebalancing) 및 현금확보(Cash-Hoarding)
- 위기를 겪고 난 후 “국가 · 기업간 순위도 변화” (Survivor’s Effect)

역사적 권력이동 세계 경제력 집중 약화, 신흥 시장국 · 자원 부국 부상

- 미국 중심의 일극(uni-polar) 체제 약화 → 신흥시장국의 역할 확대
 - * 세계 GDP의 70%를 차지하는 국가: (2차대전 후) 미국 + 유럽
 - (80년 대) 미국 + 유럽 + 일본
 - (90년대 이후) 미국 + 유럽 + 일본 + BRICs
 - * 세계경제 협의체: G7에서 G20으로 전환

국제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회복 지연

미국 서브프라임, 리먼 사태 이후 국제금융시장 불안 지속, 세계경제 정상화 지연

글로벌 주가

국제금융시장 불안으로 글로벌 주가 급락 등 불안심리 확산

세계경제 침체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세계 경제 회복 지연

	06년말	07년말	08년말	09년말	10.12.9	07년말 대비
미국 DJIA	12,463	13,265	8,776	10,428	11,370	-14.3%
일본 Nikkei225	17,226	15,308	8,860	9,540	10,286	-32.8%
엔/달러	116	118	103	81.6	84.0	-28.8%
한국 KOSPI	1,434	1,897	1,124	1,683	1,989	4.85%
원/달러	930	938	1,258	1,155	1,139	21.4%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1차 충격, 소득감소로 인한 소비위축에 의한 2차 충격, 증시하락에 의한 자산효과라는 3차 충격이 이어지면서 실물경제 회복 지연

성장률 (%)	2006	2007	2008	2009	2010	2008-2010 평균
미국	2.7	1.9	0.0	-2.6	2.6	0.0
일본	2.0	2.4	-1.2	-5.2	2.8	-1.2
한국	5.2	5.1	2.3	0.2	6.2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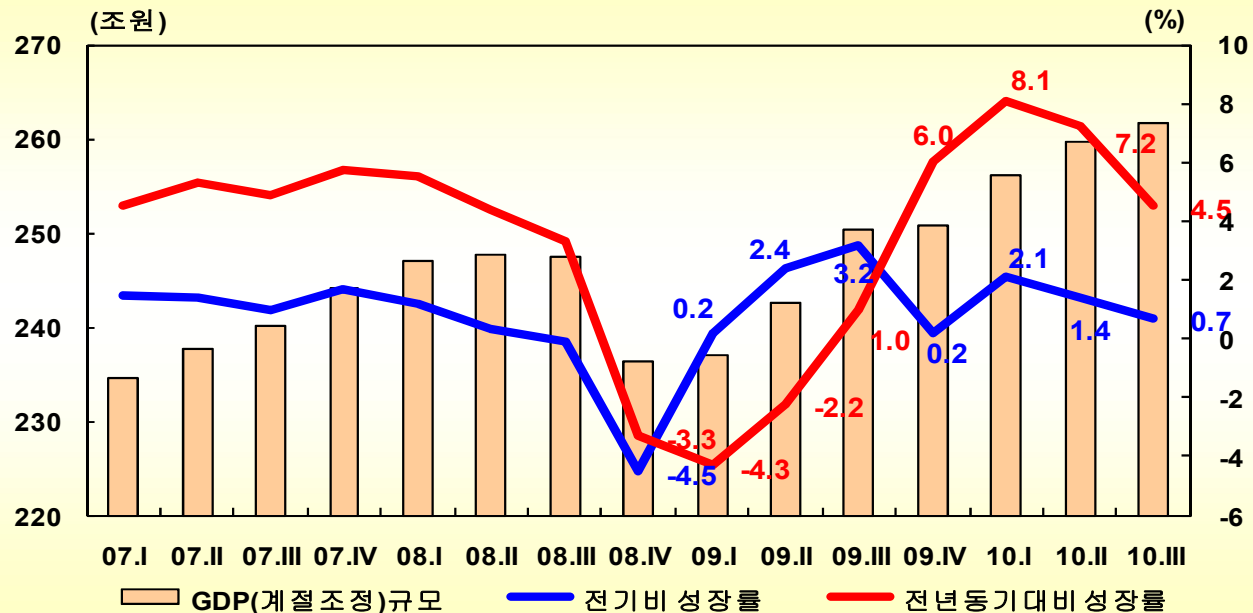
II. 최근 우리 경제 현황

우리 경제의 성장률

금년 상반기까지 빠른 속도의 회복세를 지속해왔던 우리 경제는 최근 정상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하면서 개선속도가 완만해지는 모습

- 이 같은 최근의 성장률 하락은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가 정상화되면서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점근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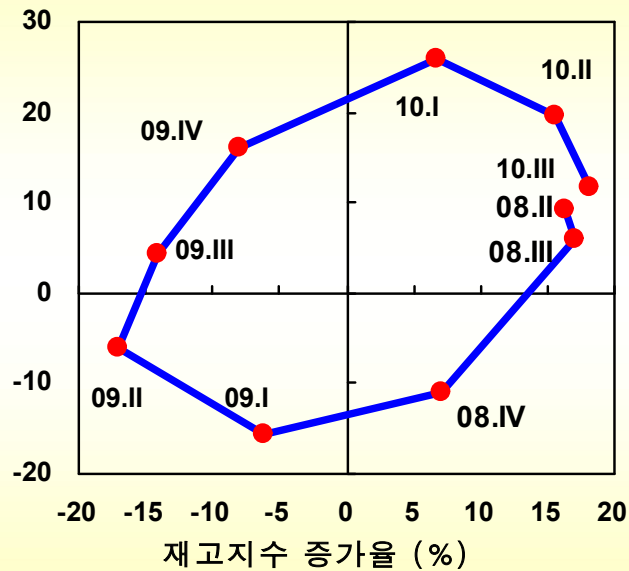
분기별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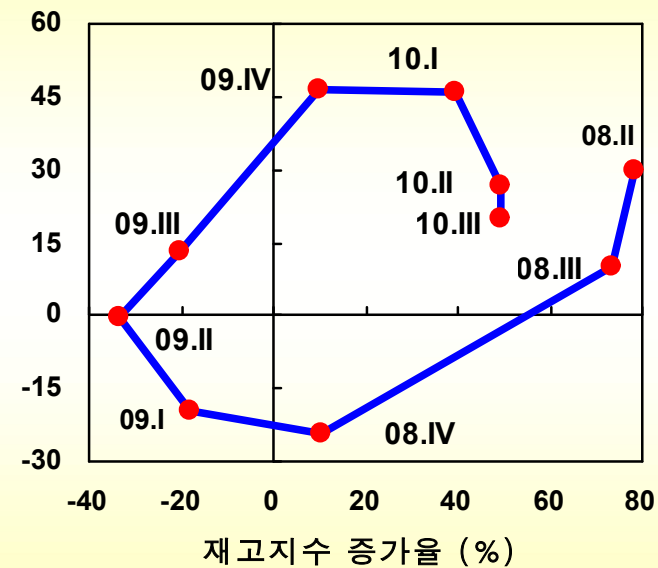
최근 경기 추이-생산 측면(1/2)

생산-재고 순환도 최근까지 빠르게 나타났던 경기확장 속도가 완만해지고 있음을 시사

광공업 전체



반도체 및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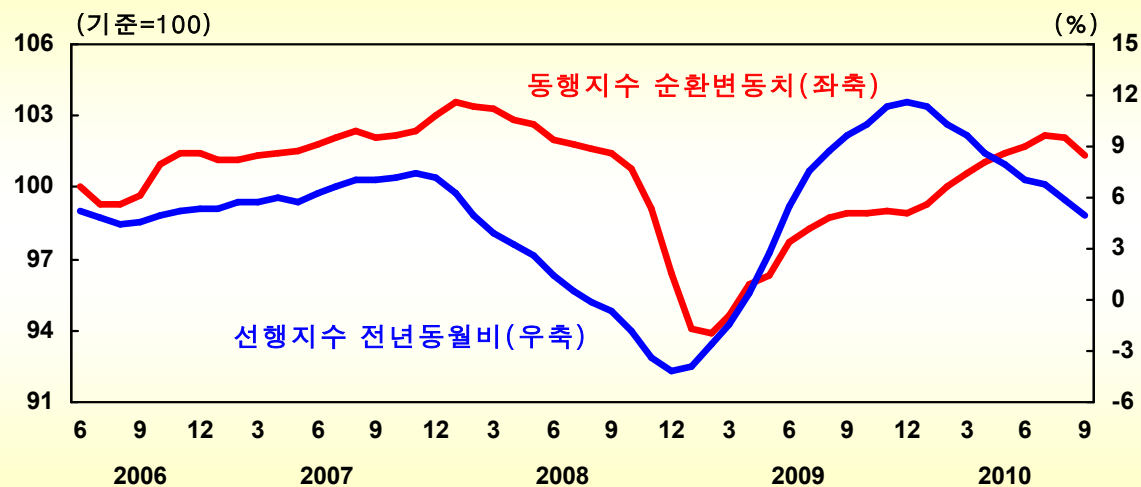


최근 경기 추이-생산 측면(2/2)

이와 더불어, **경기종합지수**는 최근 들어 **동행지수도 소폭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임.

- 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아직까지 기준치를 상회하고 있지만 2개월 연속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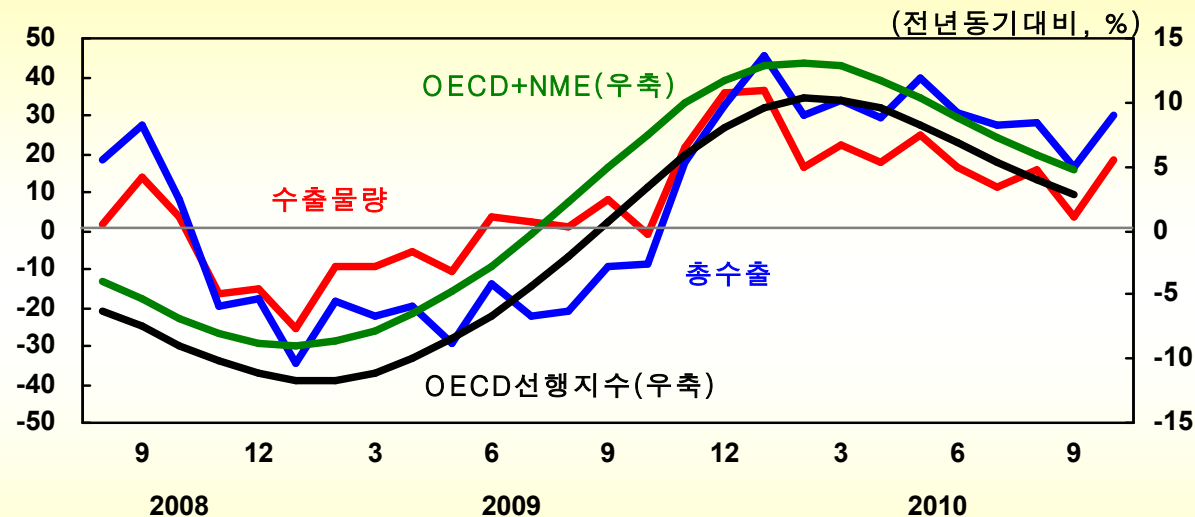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최근 경기 추이-수출 측면(1/2)

경기확장을 주도해 왔던 수출은 신흥시장국을 비롯한 교역대상국들의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견실한 개선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총수출액, 수출물량 및 OECD선행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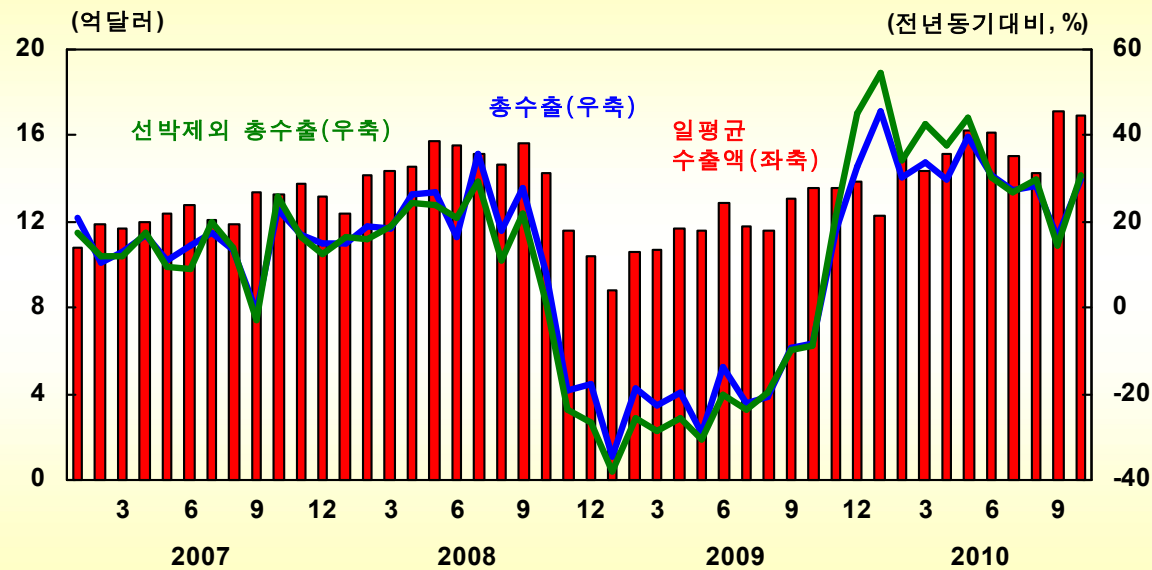
주: 1) 수출물량=선박제외 총수출액/수출단가(단, 수출단가는 7월까지만 발표된 관계로 8~9월중에는 수출물가(달러기준)와 동일한 추세를 보인다고 가정.

2) NME(Non-member Major Economy): 중국, 브라질,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최근 경기 추이-수출 측면(2/2)

2009년 2/4분기 이후의 빠른 증가세로 인해 총수출 증가율이 다소 낮아지고는 있으나, 최근 일평균 수출액이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

총수출 및 일평균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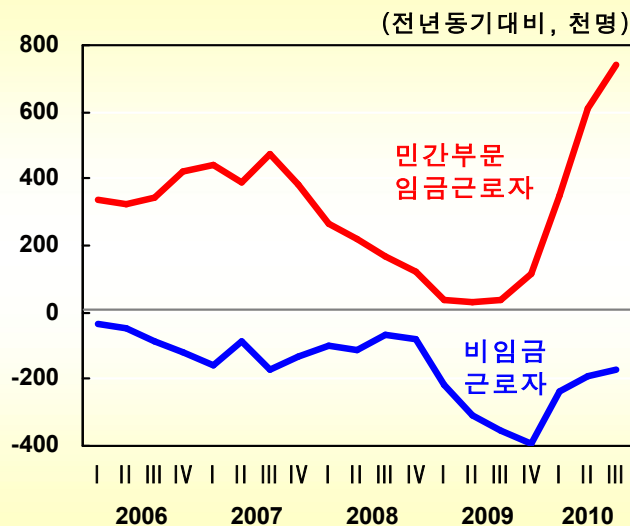


최근 경기 추이-내수 측면(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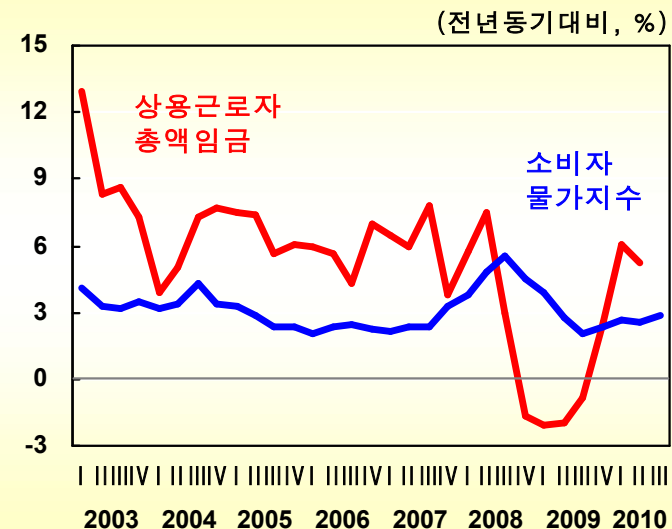
정부의 일자리 창출사업 종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고용회복이 가시화되는 모습**

- 민간부문 임금근로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비임금근로자의 감소폭도 축소
- 임금도 금년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의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민간소비의 증가세를 뒷받침**

민간부문 근로자수와 비임금 근로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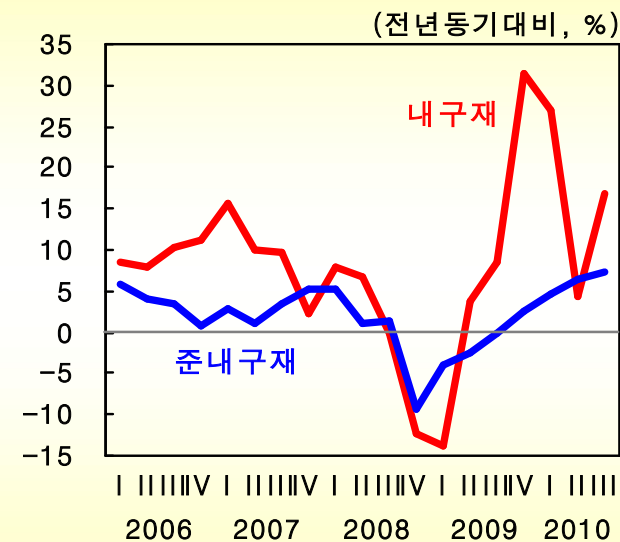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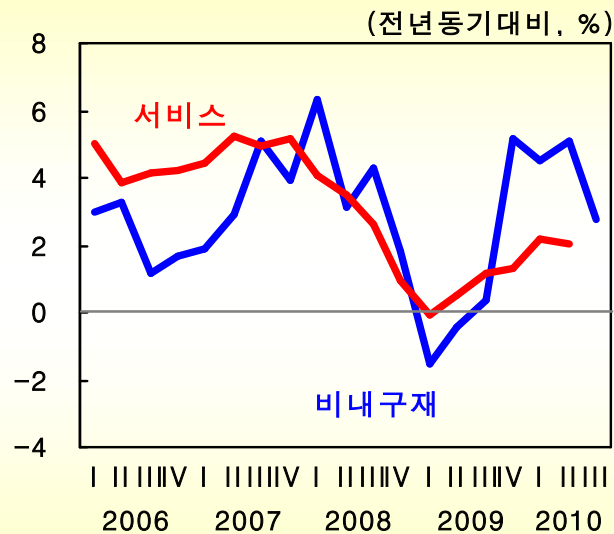
임금 및 물가상승률



최근 경기 추이-내수 측면(2/3)

이에 따라 서비스 및 비내구재·준내구재 소비가 완만한 개선추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작년 2/4분기 이후 급증했던 내구재 소비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민간소비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

부문별 민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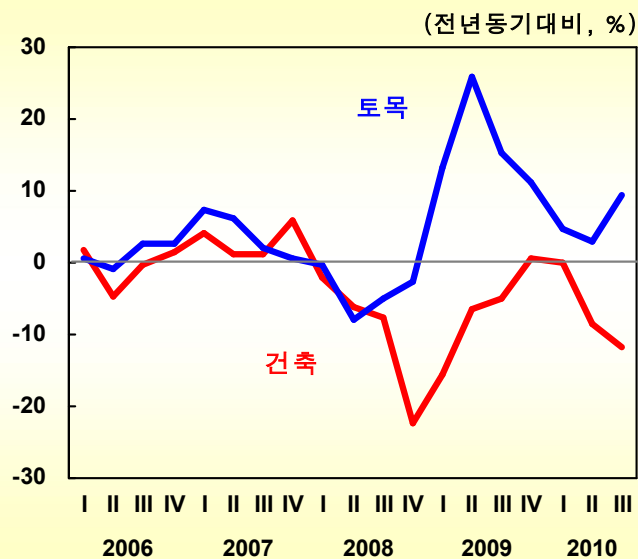
주: 2010년 3/4분기의 수치는 소비재판매액지수의 부문별 자료임.

최근 경기 추이-내수 측면(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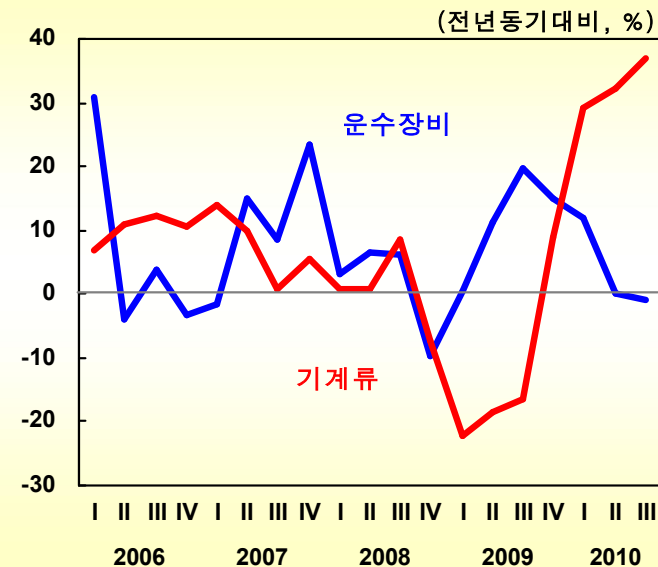
투자의 경우, 건설투자는 저조하나 설비투자는 견실한 모습이 유지

- **건설투자**는 재정사업의 영향으로 토목건설이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주택건축의 감소세가 다시 확대되면서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황이 지속**
- 반면, **설비투자**는 기업수익 호전 및 원화가치 회복에 따른 수입비용 감소에 기인하여 기계류 투자를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

부문별 건설기성(불변)



부문별 설비투자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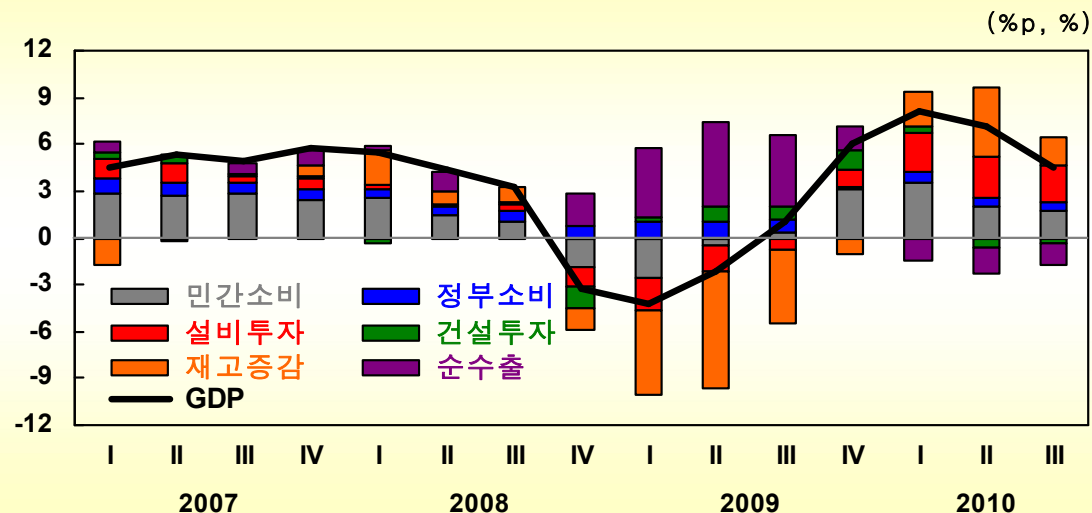


수출과 내수의 성장(1/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초기 회복단계에서는 주로 순수출의 증가에 의존했었으나, 금년에는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큰 폭으로 확대

- 위기 직후에는 수입의 급격한 위축이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를 확대한 측면이 있으나, 작년 하반기 이후에는 수출의 증가가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주도
- 금년 들어서는 수입 증가로 인해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의 증가세가 이를 보완하면서 전반적인 성장세가 유지되는 모습

GDP 성장률과 부문별 성장기여도 (전년동기대비 기준)



수출과 내수의 성장(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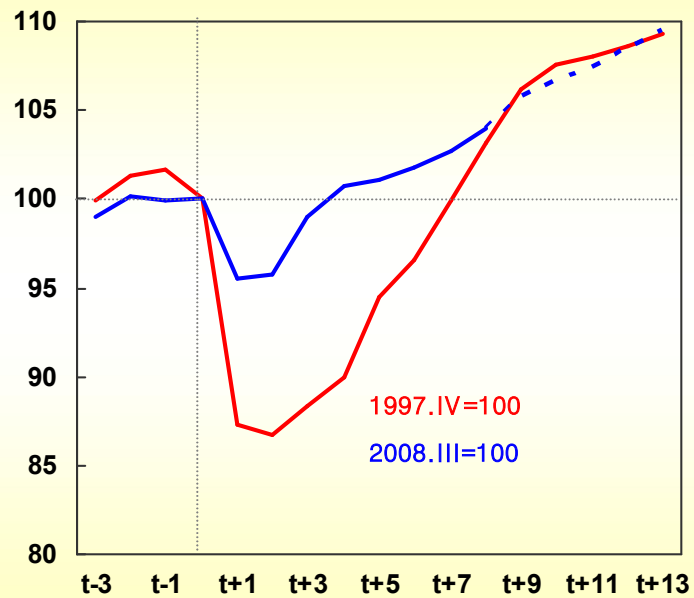
이 같은 수출과 내수의 동반 성장세는 내년에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세가 유지되면서 우리 수출도 비교적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상수지는 축소되고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도 마이너스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내수도 가계의 소득 증가 및 고용 개선과 기업의 수익성 향상 등을 바탕으로 당분간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금년에 플러스로 반전되었던 재고증감의 성장기여도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견실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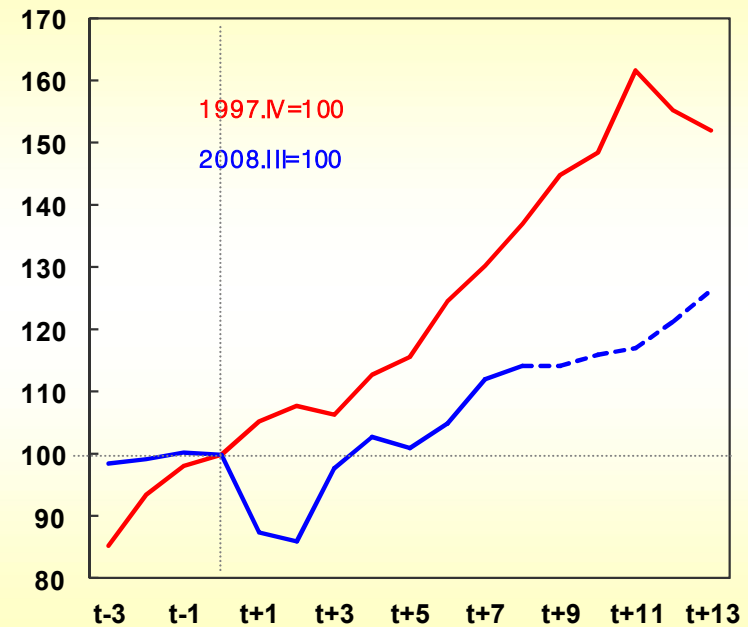
참고 : 외환위기 당시와의 비교

내수(특히 소비)와 수출의 구성은 외환위기 당시와 큰 차이

민간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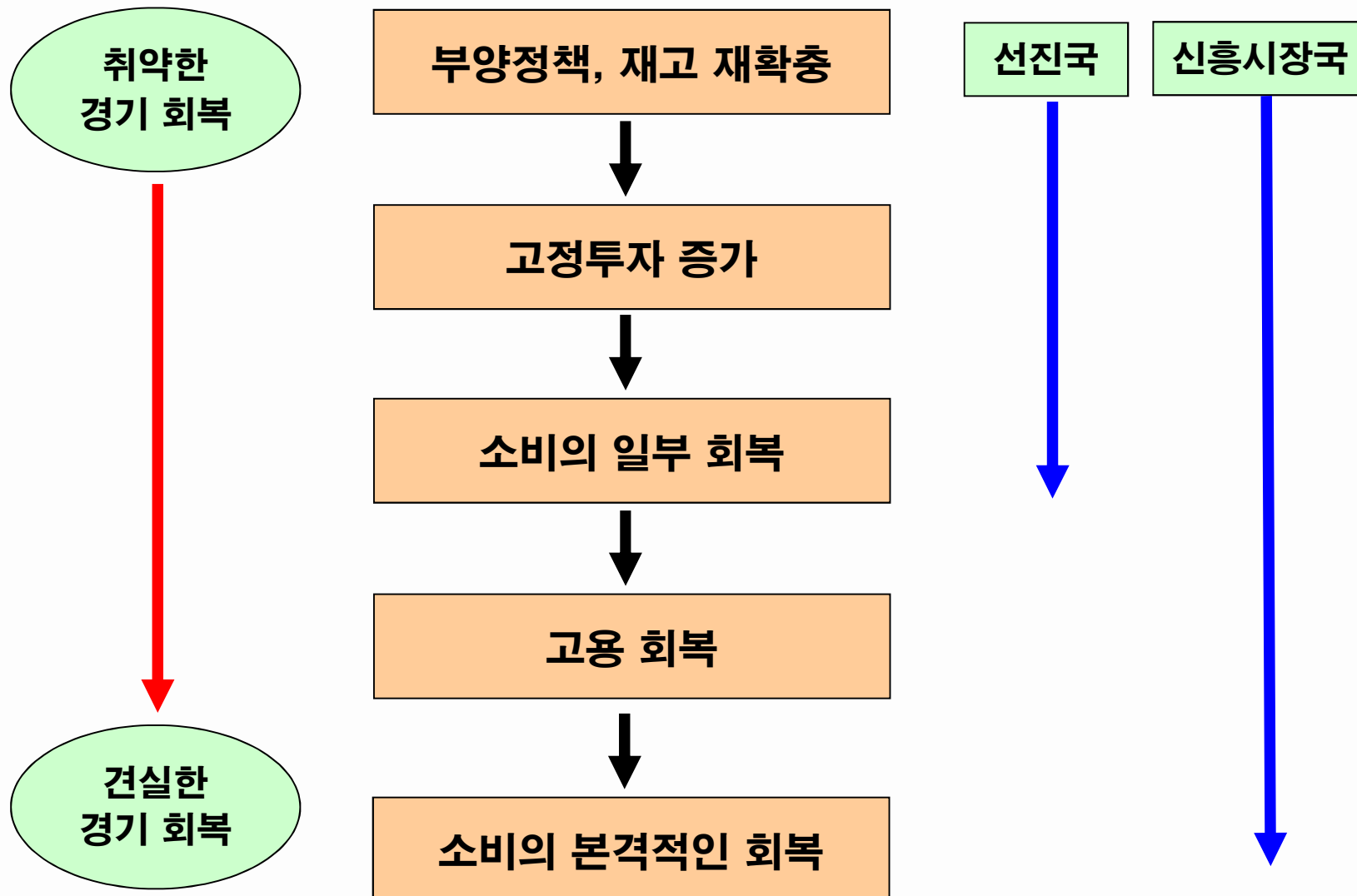
상품수출





III.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영향

세계경제 현황 Overview



세계경제의 불확실성(1/2)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국가간 회복속도의 차이가 커지고 자국중심적 정책대응이 확산되면서 불확실성도 확대

- 금년 들어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부각된 가운데, 미국과 유로지역의 고용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세계경제 재 위축 우려도 제기된 바 있음.
- 그러나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의 견실한 성장세를 중심으로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IMF 등 주요 기관의 전망도 긍정적인 모습

주요국의 2010~11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IMF)

(%)

전망시점	World	미국	유로	일본	중국	NIEs ¹⁾	한국
2010년 4월	4.2 [4.3]	3.1 [2.6]	1.0 [1.5]	1.9 [2.0]	10.0 [9.9]	5.2 [4.9]	4.5 [5.0]
2010년 7월	4.6 [4.3]	3.3 [2.9]	1.0 [1.3]	2.4 [1.8]	10.5 [9.6]	6.7 [4.7]	6.1 [4.5]
2010년 10월	4.8 [4.2]	2.6 [2.3]	1.7 [1.5]	2.8 [1.5]	10.5 [9.6]	7.8 [4.5]	6.1 [4.5]

주 : 1) Newly Industrialized Asian Economies: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2) 한국은 2010년 8월 시점의 전망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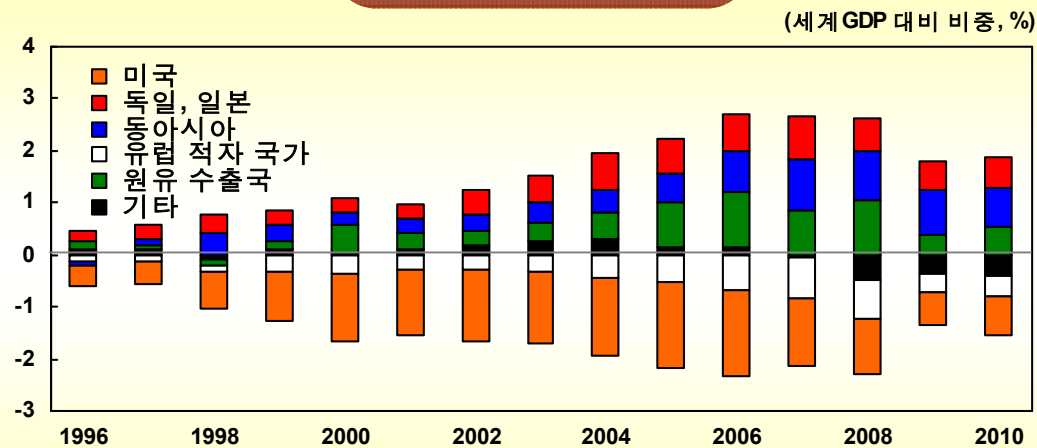
3) []안은 2011년 전망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July, October 2010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2/2)

- 전반적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경기회복 속도가 큰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양적완화(QE)정책 재개 등 **개별국가 차원에서 추가적 부양책을 모색**하는 경향이 확산
- 그러나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달러 약세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되고 이에 대응한 **주요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도 확산**되는 모습
- 한편 G20 서울정상회의 이후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나, **환율 관련 국가간 긴장은 당분간 세계경제의 하방위험 요인**으로 잔존할 전망

글로벌 불균형



주: 주요 지역별 경상수지의 세계 GDP 대비 비중 (2010년은 전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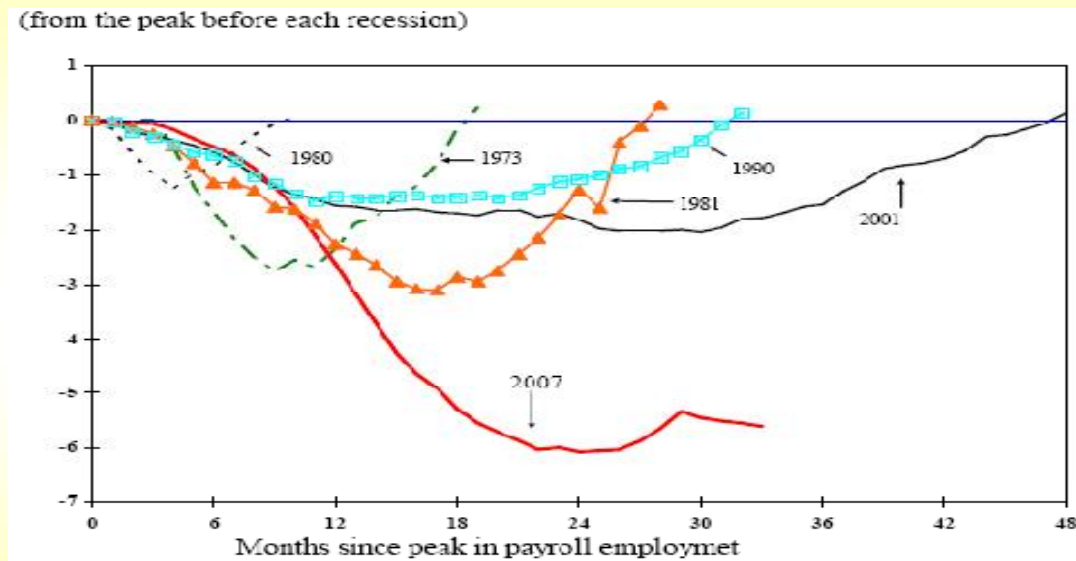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10.

참고: 미국의 고용시장 회복 전망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는 고용 회복을 지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기술 고도화 및 주택금융 등 소매금융의 확대는 고용의 조정기간을 구조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미국 고용시장의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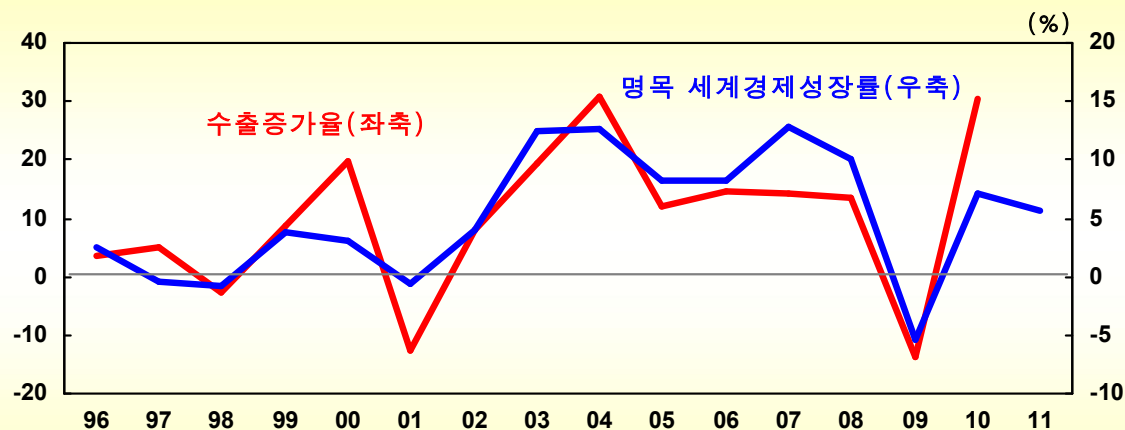
자료: LINK Global Economic Outlook, UN, October 2010.

우리 경제에의 영향(1/3)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는 우리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수출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 환율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남유럽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의 위험요인들이 현실화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도 더욱 크게 나타나겠지만, 그 가능성은 아직 낮은 것으로 판단됨.

세계경제성장률과 수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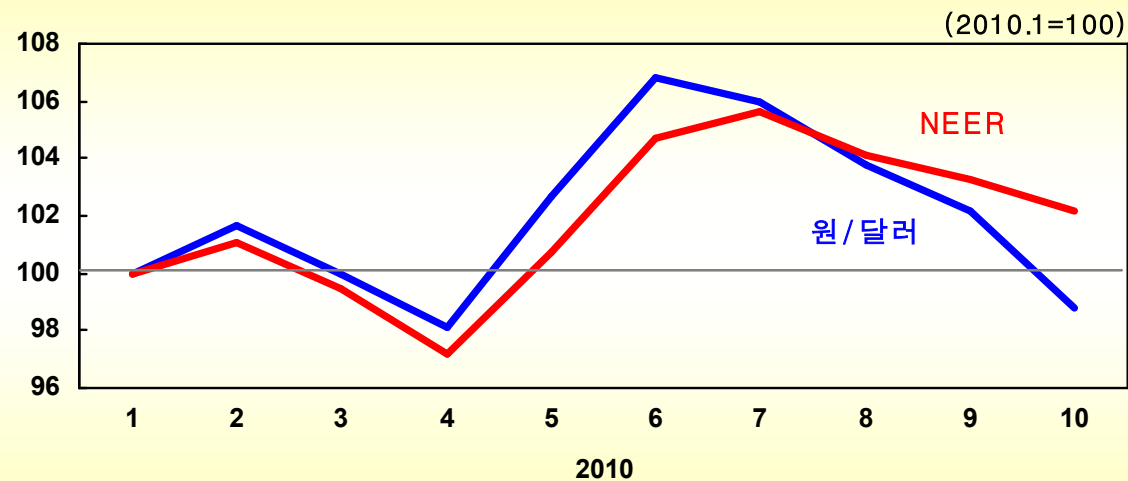
주: 1) 2010~11년의 명목 세계경제성장률은 IMF의 전망치.

2) 2010년 수출증가율은 1~10월중 수출금액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우리 경제에의 영향(2/3)

-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원화가치 상승)를 보이고 있으나, 여타 국가의 통화가치도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수출의 가격경쟁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 최근의 원/달러 환율 하락은 전 세계적인 달러 약세에 따른 것으로서, 주요 교역대상국 통화들과의 환율을 동시에 고려한 명목실효환율(NEER)은 원화가치의 상승이 비교적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명목실효환율(NEER)과 원/달러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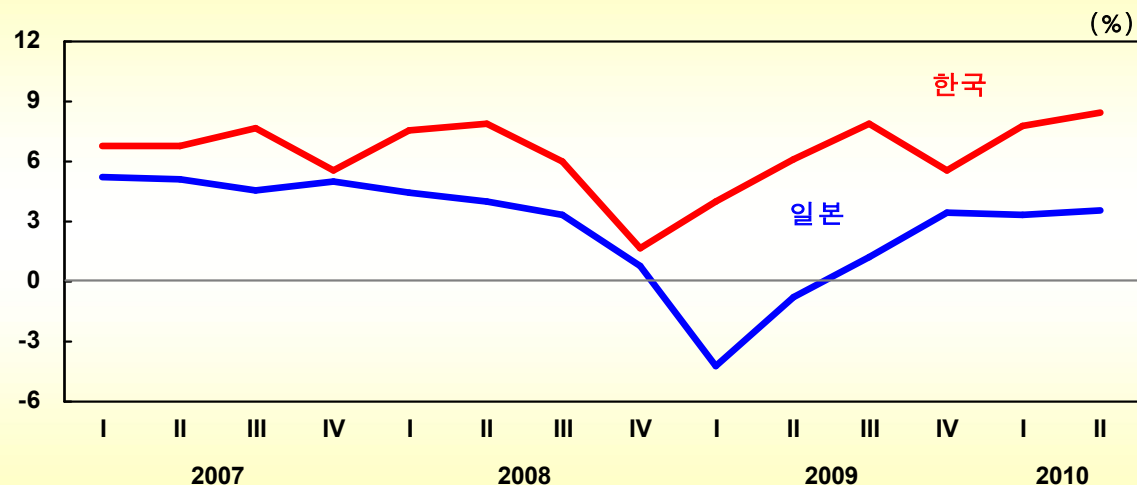


주: 2010년 1월중 평균을 100으로 환산한 월평균 환율.

우리 경제에의 영향(3/3)

- 원화 강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나, 수출을 비롯한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수익성이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는 바, 어느 정도의 원화 강세는 큰 충격 없이 흡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한편, G20 등 국제적인 정책공조는 각국의 경쟁적 평가절하가 보호무역주의로 연결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수출의 안정적 확대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제조업의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IV. 최근의 경제 전망

대외 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2011년 세계경제는 2010년 보다는 소폭 둔화되겠지만,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제**

- 세계경제가 2010년에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나, 2011년에는 **기저효과가 다소 완화되면서 성장률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제**

2011년 연평균 **원유도입단가**는 세계 수요 증가세에 따라 2010년 대비 약 10% 상승하며 **배럴당 85달러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전제**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에서 **완만하게 상승하는 추이를 유지할 것으로 전제**

- 최근 원화가치는 세계금융시장 안정 및 상대적으로 빠른 국내 경기 상승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1년에도 유사한 원화가치의 상승 속도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2011년 국내경제 전망(1/3)

2011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된 성장을 바탕으로 4.2%의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우리 경제는 수출의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민간소비와 투자도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민간소비는 소득과 고용상황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정상화됨에 따라 소득 증가율과 유사한 4.1%의 증가율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는 수요확대 지속 및 원화가치 상승 등을 배경으로 8.5%의 견실한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건설투자는 미분양 축소,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부진이 점차 완화되면서 3.4%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상품수출(물량기준)은 세계경제 여건의 점진적 개선에 따른 해외수요 증가로 12.5%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상품수입(물량기준)은 국내 경제의 안정적 성장세에 따른 수입수요 증가로 14.6%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2011년 국내경제 전망(2/3)

경상수지는 국내 경기 회복 및 환율 안정에 따라 수입 증가세가 수출 증가세를 넘어서면서, 2011년에는 **2010년(320억달러)에 비해 크게 감소된 15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2010년(533억달러)에 비해 감소한 **426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여행수지 적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0년(212억달러 적자)에 비해 적자폭이 다소 확대된 **27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

2011년 국내경제 전망(3/3)

실업률은 경기 회복과 함께 점차 낮아져 2011년 평균으로 3.6%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

- 2011년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겠지만, 견실한 내수 증가세에 힘입어 **취업자 수는 연평균 30만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예상**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1년에도 우리 경제의 완만한 성장세가 지속됨에 따라 2010년(2.9%)보다 높은 3.2%를 기록할 전망

- 2011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성장세 지속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을 환율 하락이 상당 부분 상쇄하면서 2010년보다 소폭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한편 **근원물가**는 성장세 지속에 따른 총수요 압력 확대가 반영되며 2010년의 1.8%에서 2011년에는 **2.7%**로 상승률이 높아질 전망

전망의 위협요인

내년 전망에는 국가별 경제 여건의 차이를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추진으로 인한 국제경제변수들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위협요인

- 금융위기 당시 경기급락 방지라는 목표 하에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국제공조가 순조롭게 추진되었던 것과는 달리, 국가별로 경기회복이 다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거시경제정책도 차별화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간 갈등이 발생
- G20 등을 통해 국가간 갈등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경제상황에 따라 갈등이 고조되고 이에 따라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이 급변하거나 금융시장에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 이러한 충격이 현실화 될 경우 2011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이 일부 존재

KDI의 우리 경제 전망



2010-11년 거시 경제의 모습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10					2011		
	1/4 ^p	2/4 ^p	3/4 ^p	4/4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내총생산 (계절조정 전기대비)	8.1 (2.1)	7.2 (1.4)	4.5 (0.7)	5.4 (1.0)	6.2	4.0 (1.0)	4.3 (1.1)	4.2
민간소비	6.3	3.7	3.3	4.1	4.4	4.3	3.9	4.1
설비투자	29.9	30.2	25.2	19.0	25.6	11.0	6.3	8.5
건설투자	2.3	-2.9	-2.1	-2.0	-1.4	2.6	4.1	3.4
상품수출(물량)	21.6	14.9	11.5	16.8	15.9	12.3	12.7	12.5
상품수입(물량)	21.8	22.1	16.5	22.3	20.6	14.7	14.5	14.6
경상수지	13	103	121	83	320	71	81	152
상품수지 (수출증가율)	74 (32.6)	157 (34.6)	166 (23.6)	135 (25.4)	533 (28.6)	217 (15.2)	209 (12.1)	426 (13.6)
(수입증가율)	(37.7)	(45.6)	(25.5)	(31.9)	(34.6)	(17.6)	(17.8)	(17.7)
서비스·소득· 경상이전수지	-61	-54	-46	-52	-212	-147	-128	-275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2.7 (1.9)	2.6 (1.6)	2.9 (1.8)	3.4 (1.9)	2.9 (1.8)	3.3 (2.7)	3.0 (2.7)	3.2 (2.7)
실업률 (계절조정)	4.7 (4.3)	3.5 (3.4)	3.5 (3.6)	3.4 (3.6)	3.8	3.8 (3.6)	3.4 (3.5)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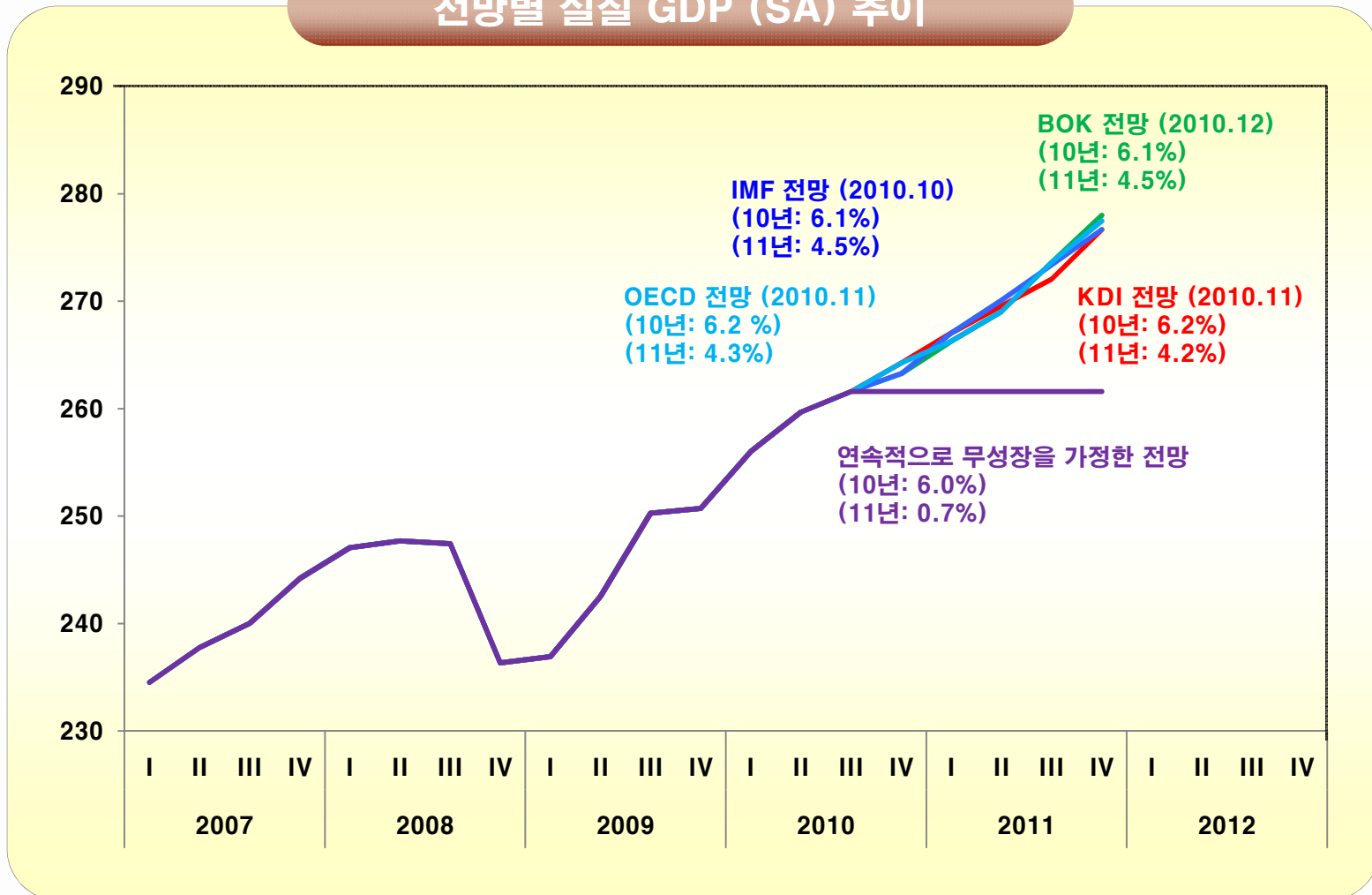
주: 1) p는 잠정치.

2) 2011년도 상반기 국내총생산의 전기대비 증가율은 해당 2분기의 전분기대비 성장률 평균임.

전망별 GDP 추이



전망별 실질 GDP (SA) 추이





V. 향후 경제정책 방향

정책의 기본방향(1/2)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내부 여건을 확보하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

-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정책의 정상화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향후 대외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세출구조조정 및 세입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대내외 위협을 큰 충격 없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 대응능력을 제공할 것임.
 - 저금리기조 정상화 등 확장적인 통화정책이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자산가격 및 물가 불안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도 지속될 필요
 - 세계적 유동성 증가로 우리 경제에도 자본유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 금융기관의 외환부문 건전성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을 통해 향후 급격한 자본유출입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정책의 기본방향(2/2)

- 이와 더불어, 안정적인 성장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에 따라 주요 선진국의 수요가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수출중심적 성장구조도 한계에 다다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따라서 내수부문 성장기여도를 높이는 등 성장구조를 보다 균형된 모습으로 변환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수출수요를 대체하는 국내 수요의 진작보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출과 내수간의 차별제거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내수관련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한편 장기적 성장잠재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 각 부문에서 시장개방 확대를 통한 **경쟁 활성화 및 구조조정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

재정건전성 확보(1/2)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정책 기조 정상화를 위해 세입기반 확대 및 세출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실행할 필요

2011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서민지원 및 성장기반 확충이라는 장단기 정책목표를 적절히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됨.

- 2011년 재정정책 기조는 금년에 이어 다소 긴축적(재정충격지수 기준)인 것으로 평가되나, 관리대상수지 적자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서민지원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해 보건·복지·노동, R&D, 교육 분야 등의 지출증가율을 높게 설정한 것은 적절한 자원배분으로 사료됨.
 - 글로벌 일각에서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및 SOC 지출의 낮은 증가율을 우려하고 있으나, ‘정부개입은 시장실패 부문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재정건전성 확보(2/2)

향후에도 지출효율성 제고 및 비과세·감면제도 개선 등 안정적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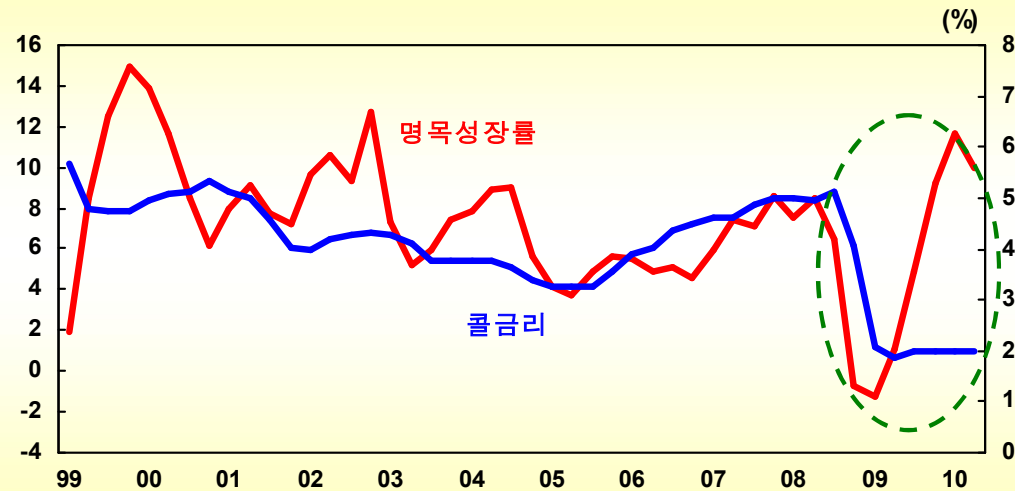
- 정부는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총지출증가율을 총수입증가율보다 2~3%p 낮게 유지하는 ‘재정준칙’ 을 도입한 바 있는데, 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
- 지출 측면에서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더불어, 재정사업에 대한 엄밀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재정규율을 확립하는 등 지출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수입 측면에서는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감세정책기조 하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과세·감면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
- 세제개편안 및 예산안 편성·심의 과정에 있어서도 **재정건전성 제고를 우선적인 원칙으로 설정**함으로써, 세입·세출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

저금리 기조의 정상화(1/3)

저금리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향후 정책수단의 활용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금리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현재 금리는 성장률 등 경제 여건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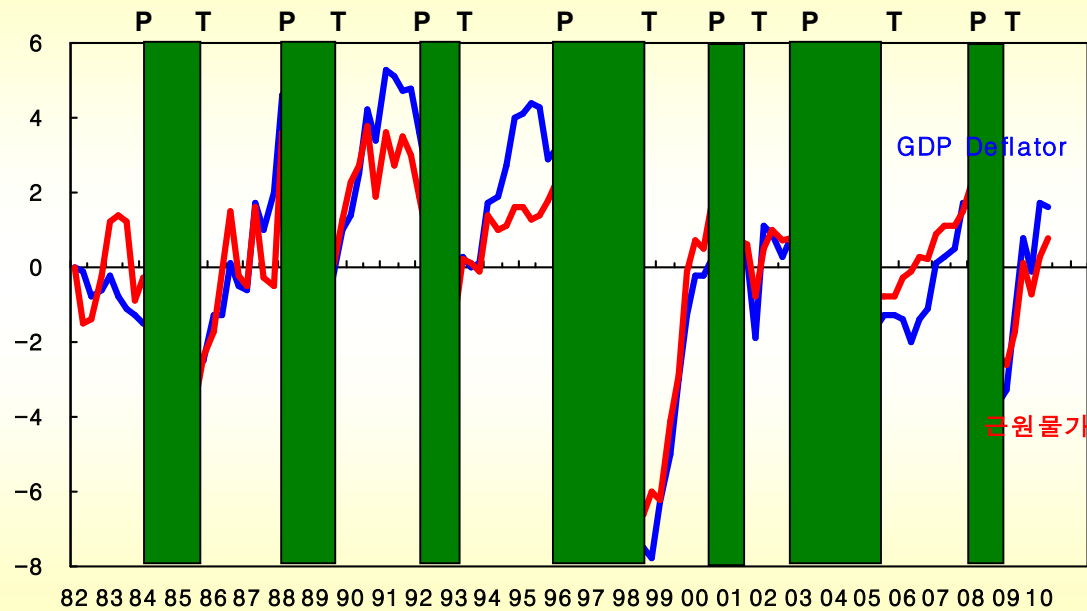
명목성장률과 콜금리 추이



저금리 기조의 정상화(2/3)

-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총수요압력이 높아지는 등 구조적인 물가상승요인이 축적되고, 경제주체의 물가상승기대도 높아지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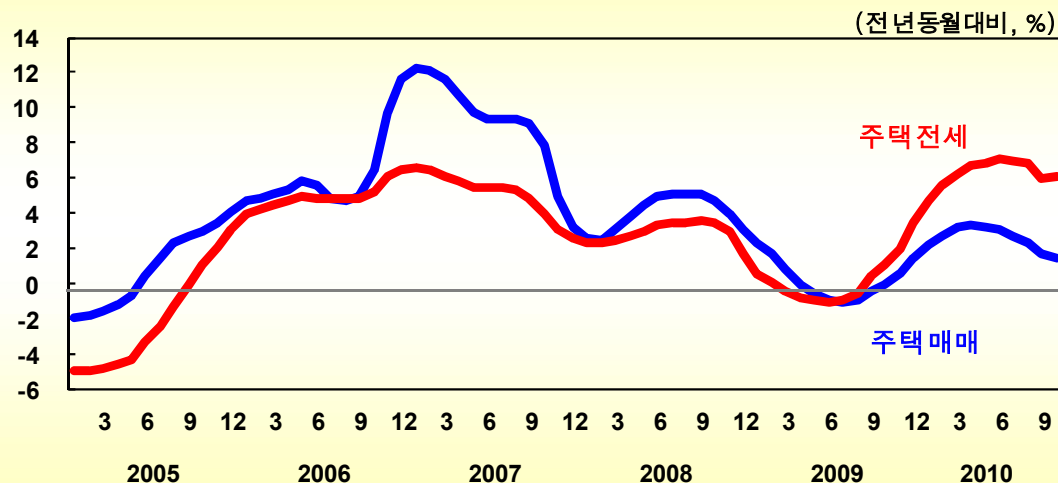
총수요압력 추이



저금리 기조의 정상화(3/3)

- 저금리가 지속되는 경우 물가상승 기대가 높아질 수 있으며, 자산가격 급등 및 재무구조 부실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확대됨.
- 또한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 향후 발생 가능한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확보할 필요도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의 정책금리 인상은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에도 금리 정상화 기조를 견지할 필요

주택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추이



주택금융시장의 구조개선

거시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한 가계 및 금융기관의 충격을 완화하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

-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은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방식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택경기 침체 등 **거시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장기·고정금리 비중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주택금융시장의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여 **가계 및 금융기관의 충격 대응능력을 강화할 필요**
- 금융감독 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비자보호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외환시장의 안정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자본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외환정책을 시장결정적으로 운용함과 동시에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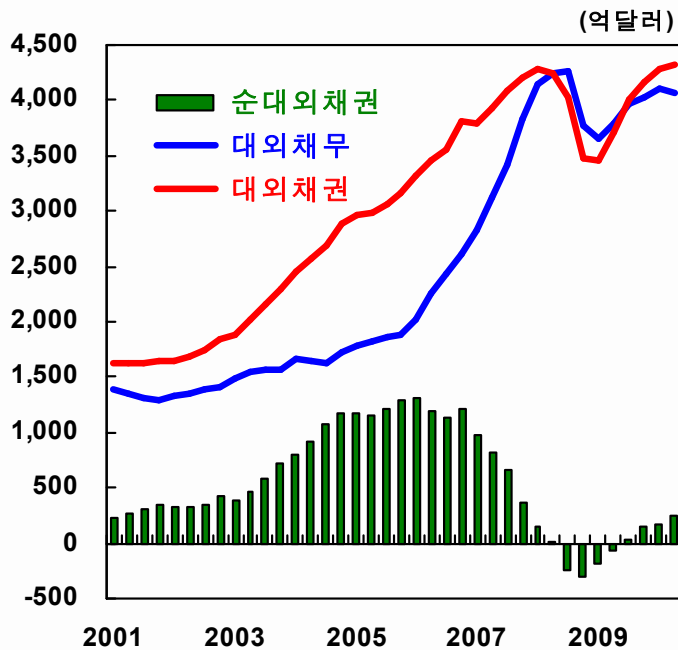
-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률 및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 양호한 국내요인과 더불어 선진국의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증대는 자본유입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급격한 자본유출입은 국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의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
- 외환정책을 시장결정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외환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

참고: 외환시장 위협요인 감소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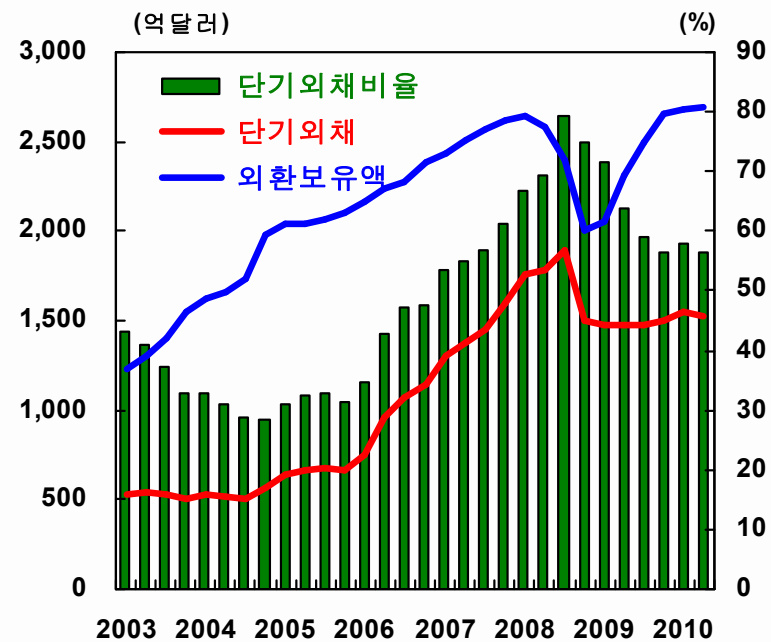
국제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시장 불안을 확대시킨 주요 요인이었던 단기외채 비중은 최근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대외채무, 대외채권 및 순대외채권 추이



자료: 한국은행.

단기외채, 외환보유액 및 단기외채비율 추이





감 사 합 니 다.